

# “아침 굶지 마세요” 광주에 전국 첫 ‘근로자 조식센터’

### 시, 3월부터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서 간편식 절반 가격에 제공 노동계·전문가 재해 예방효과 기대...시 “메뉴·장소 확대할 것”

3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에 ‘근로자 조식센터’가 운영에 들어간다. 아침식사를 챙기지 못하고 새벽 일찍 출근하는 산업단지의 작업자들에게 저렴하게 아침식사를 제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오는 3월 말부터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 조식센터를 열고 ‘근로자 조식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제안했던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의 두번째 제안으로 광주시가 제안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하기로 한 것이다.

문 센터장은 제안의 이유로 “산업단지 근무시간은 평균 오전 7시 30분으로 작업자 대다수는 오전 6시 30분에 집을 나서다보니 아침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매일 조식을 거르고 강도 높은 일을 반복하면 작업자들의 건강은 악화되고 작업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조식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센터장의 결론이었다.

광주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하남산단 작업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간편식으로 조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지난 2019년 실시한 광주지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시 7개 산업단지 중 조식을 제공하는 업체는 전체의 8.9%에 불과한 점도 이번 사업을 실시한 배경이다.

조사 결과 ‘매일 아침을 먹는다’는 노동자도 30%에 불과해 10명 중 7명은 아침을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아침을 거르는 이유로 ‘빠른 출근시간’과 ‘아침밥을 먹지 않는 습관’을 꼽았다.

노동자 조식 지원서비스를 운영하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8%로 절반을 넘었고, 50~29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70%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오는 3월부터 산단 근로자들에게는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샌드위치 등 베이커리를 절반 가격에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광주시는 하루 90명의 노동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복지관 1층을 식품판매 장소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전문가들도 사업의 효과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조식지원으로 산업재해 예방 효과까지 기대된다는 점에서도.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아침을 굶으면 오전 내내 피곤한 상태가 지속돼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점심에 폭식으로 이어진다”며 “피곤한 상태에서 폭식을 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작용해, 오후에 일하는 도중 깜빡 졸아 큰 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광주시의 이번 사업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일부 수정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사업이 시행되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이 출근 시간에만 수천명이 오가는 평동역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메뉴도 부족해 노동자들의 호응을 얻기 힘들다는 점에서도. 샌드위치, 빵 종류 대신 김밥, 누룽지와 같은 밥 종류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시범 운영 단계로 반응이 좋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 메뉴와 장소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유리병 속 자연 어린이들이 14일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에서 열린 ‘이끼 테라리움’ 꾸미기 교실에서 자신들이 만든 테라리움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호남119특수구조대에 국산 소방헬기 2대 배치

### 야간에도 임무수행 가능

‘호남119특수구조대’에 국산 신형 소방헬기(KUHC-1) 2대가 배치돼 본격적인 항공구조·구급 임무를 시작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화순에 위치한 호남119특수구조대에 15일 국산 신형 다목적중형 소방헬기 2대를 배치하고 취항식을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배치되는 소방헬기는 ‘호남 1호기’와 ‘호남 2호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제작한 국산 헬기(KUHC-1)다. 같은 기종의 소방 헬기로는 제주 119항공대와 경남 119항공대에 이어 중앙 119구조본부 2대를 포함해 모두 4대가 있다.

균용으로 개발한 수리온 헬기(KUH-1)에 가장

레이더와 배면 물탱크 등을 추가 장착해 민간 응급환자 이송·구조, 산불 진화 등의 임무 수행에 나선다. 호남119특수구조대 항공대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기종 전환 교육 및 임무 적응 훈련을 실시해왔다.

이 헬기는 야간에도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첨단 항법장치가 장착됐고, 응급의료장비(EMS kit)장·탈착이 가능해 응급환자 이송에도 활용된다.

또 인명구조인양기(호이스트)로 산악구조 임무가 가능하며, 담수량은 2000ℓ로 대형 화재 진압 및 산불 진화 지원도 할 수 있어 각종 재난환경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으로 전국 17개 119항공대에는 이번에 투입되는 2대의 헬기를 비롯해 총 33대의 소방헬기가 배치되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 높인다

### 최대 징역 ‘5년 6월’·뺑소니 사망 ‘3년~12년’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징역 5년 6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뺑소니사고의 처벌 기준(양형기준)도 상향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공청회, 관계기관의 의견 조희 등을 거쳐 오는 4월 24일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음주 교통사고는 기존에 교통사고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오다가 이번에 별도로 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신설되면서 권고 형량 범위가 종전보다 크게 됐다.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징역 8월~2년,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징역 1년~3년을 권고했지만, 신설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기본 1년 6월~4년이 권고된다.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에 최대 5년 6월까지 선고된다. 음주사고로 상해를 입힐 경우에도 기본 징역 1년 6월~3년 6월을 권고하고 다수 범죄로 처리해 최대 징역 5년

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중인자로는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 전신주를 들이받는 경우, 장거리 혹은 고속도로 운전인 경우, 도주 시도해 추적 끝에 검거된 경우, 음주 측정 거부 등이다.

가족이 위독하다거나 대리운전으로 목격지 근처까지 이동한 뒤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했다.

뺑소니 후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유기 도주 후 치사)의 양형 기준은 징역 3년~10년이었으나 3년~12년으로 상향됐다.

유기 없이 도주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의 양형 기준도 종전의 징역 2년6월~8년에서 징역 2년6월~10년으로 올랐다.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300만~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6월~5년의 징역형을, 사망한 경우 징역 1년 6월~8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징역 1월~10개월을 권고하기로 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벌금 300만~1000만원 또는 징역 6월~4년을 권고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 전남대 ‘거점대 1위’

전남대가 정부,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 부문에서 전국 거점국립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14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대학재정알리미에 발표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는 2021년 재정지원사업으로 모두 4959억원 수혜를 받았다. 이는 전국 거점국립대를 비롯한 비수도권 대학 가운데서 가장 많은 금액이다.

전남대는 중앙정부에서 4559억원, 지자체에서 400억원을 지원받았거나 연차별로 지원받는다.

전남대는 재정지원사업 성과에 대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비롯해 두뇌한국21사업(BK21), 3단계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3.0),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 등에 선정된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남대는 교육부의 경상운영비·학자지원사업을 제외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거점국립대 가운데 1위에 올랐다.

김재훈 전남대 기획조정처장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교육·연구의 질을 더욱 높이는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문이당 | 15,000원

##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권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